

지역 소식통

정읍시, 국내산 축산물 이력 라벨지 구입비 지원

정읍시가 국내산 축산물의 투명한 유통을 돕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라벨지 구입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인 소, 돼지, 닭, 오리 고기를 거래하거나 포장 처리한 실적을 신고한 식육포장처리업소다.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전산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업체당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이다. 단일 업체가 소·돼지고기와 닭·오리고기를 각각 전산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 업소와 확정금액은 심사를 거쳐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자는 오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축산과(539-6392)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전북 지방세 징수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성과 보상금(인센티브)으로 조정교부금 900만원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14개 시·군대상 지방세 징수 운영 실적을 분석해 우수기관을 가려냈다. 평가는 체납 지방세 징수율, 재산 공매 건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실적 등 9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그동안 시는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조세 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징수 행정을 추진했다. 특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재산 공매 등 일관되고 확실한 정책의 실행을 펼쳤다. 아울러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꾸준히 확인해 부동산과 금융 자산 압류, 채권 예금 추심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생회복지원금 골목상권에 활력

정읍시, 총 300억 규모로 풀려... 사용액 86%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

정읍시가 지난 1월 전 시민에게 지급한 3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가운데 99.4%인 298억원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며 사업이 마무리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10만 1527명 중 98.5%인 10만 29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소매업이 19.9%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일반음식점 14.4%, 음식료품 12.2%, 주유 10.3%, 의류 6.1%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용액의 86.4%는 소매업, 음식점, 미용업 같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됐다.

대형 유통 업체 사용률은 13.6%에 머물러 지원금 대부분이 지역 내 선순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2024년부터 2년 동안 강도 높은 재정 혁신과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시민에게 돌려준 결과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는 신속하고 공정한 배부를 위해 행정력을 모았다.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끝내갔다.

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시민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사업'과는 목적과 추진 시기가 다른 별개의 정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멜론·땅콩·미니수박, 최고의 농산물로 인정

멜론 10년·땅콩 9년·미니수박 3년 연속 '대상'... 소비자가 뽑은 농특산물 부문 최고 브랜드 차지

고창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멜론, 땅콩, 미니수박이 소비자가 인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증명했다.

고창군은 지난 30일 서울 코리안호텔에서 열린 '제17회 2026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농특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고창 멜론은 10년 연속, 고창 땅콩은 9년 연속, 고창 미니수박은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했다.

10년 연속 대상의 기록을 쌓은 '고창 멜론'은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토양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재배

기술 교육을 확대해 왔다. 과거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최우수상(농식품부장관상) 및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을 받은 삼아, 최근에는 싱가포르, 홍콩 등 동남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K-푸드의 선두 주자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9년 연속 수상 '고창 땅콩'은 전국 재배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주산지다. 타 지역에 비해 고소한 풍미와 영양 성분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창군은 최근 단순 원물 출하에 그치지 않고 가공 산업 및 브랜드 고도화를 추진, 프리미엄 땅콩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고창 미니수박'은 3년 연속 대상을 받으며 대한민국 미니수박의 고향임

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군은 2017년부터 미니수박을 전략적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했으며, 2022년 '고창미니수박연합회' 출범을 기점으로 생산 체계를 규모화·표준화했다. 전국 재배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 공급망을 구축해 대형마트와 모바일 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 멜론이 10년 연속 대상이라는 것은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해 준 농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다"라며, "땅콩과 미니수박까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만큼, 고창의 우수한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석 기자

정읍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 투입

정읍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30명 규모의 하반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현장에 투입한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읍경찰서와 함께 방지단원 30명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막고 단원들의 포획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하는 취지다.

하반기 피해방지단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전염병 전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야생멧돼지와 농작물을 크게 훼손하는 고라니를 집중적으로 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 사용 금지 구역인 국립공원을 비롯해 인가나 축

사로부터 100m 이내인 장소에서는 포획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한편, 시는 지난해 방지단 운영으로 고라니 1312마리와 멧돼지 283마리를 포획했으며, 짐승의 습격으로 손실을 본 124개 농가에 539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55개 농가를 대상으로 2억 3645만원 규모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시민들의 재산 보호에 힘쓰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벼 병해충 기본방제사업 추진

농작물 병해충 기본방제 지원사업 추진... 약제 15억원 지원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벼와 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ha당 12만 5000원 상당의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농작물 병해충 기본방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조와 자부담이 각각 50%인 사업으로 농업인이 지역 농협을 통해 필요한 방제 약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농가별 재배 여건과 병해충 발생 상황에 맞게 맞춤형 방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사업 대상은 벼, 콩, 가루쌀 재배 농업인 전체 대상이며 지원 약제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벼 및 콩 병해충 방제 약제 중에서 읍·면별 약제선정 심의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선정된다.

지원 약제는 벼의 주요 병해인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예방에 활용



되는 살균제와 함께, 멸구류, 나방류, 노린재류, 응애류 등 주요 해충 방제용 살충제를 포함하고 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이와 함께 상반기 14억원 규모의 육묘상 처리제 지원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벼 병해충 피해 예방과 안정 생산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6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판매 대리점 통해 신청 가능

부안군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차량을 보급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총 102대(승용 88대, 화물 34대)의 민간 구매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총 45대(승용 30대, 화물 1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연속해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며 오는 7월 6일부터 전기자동차 사업 물량 소진 시까지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올해 신설된 전환지원금은 개인이 3년 이상 운용한 내연기관차를 판매 또는 폐차 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으로 차종별 최대 13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안내 및 보조금 준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누리집 고시·공고(<https://www.buan.go.kr>)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안전 지도·점검

관내 내수면 양식장 15곳 대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여름철 수산 질병을 막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0일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와 함께 지역 내수면 양식장 15곳을 대상으로 수산용 의약품 사용 합동 점검을 마쳤다.

수온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여름철에는 수산 질병 발생 위험이 커진다. 이에 시는 양식장 안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오남용되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고자 현장 지도를 기획했다. 점검 대상은 관내 양식장 가운데 지난해 지도와 점검 실적이 없었던 15곳으로 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산질병관리사

등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적정 사용 여부 △미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휴약기간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의약품 사용 기록부 작성 실태 등이 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 조치했다. 또한 양식 어업인들이 스스로 안전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사용 10대 수칙'을 바탕으로 올바른 약품 사용법을 곁들여 안내했다. 시는 이번 상반기 점검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